

현안과제연구

2011. 10. 28

# FTA 7년의 성과와 향후 전망

- 충남경제를 중심으로 -

연구수행 : 김양중

# FTA 7년의 성과와 향후 전망

- 충남경제를 중심으로 -

연구수행 : 김양중(지역경제연구부)

## 목 차

1. FTA 추진현황 / 1
2. 충남과 FTA 국가 및 경제권의 교역구조 / 2
3. 지난 FTA가 충남에 미친 영향 / 3
4. 향후 FTA가 충남에 미칠 영향 / 11
5. 요약 및 결론 / 17

# 1. FTA 추진현황

- 우리나라가 체결한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가 2011년 현재 발효 7주년을 넘겼음
- 한·칠레 FTA 이후 한·싱가포르 FTA, 한·EFTA<sup>1)</sup> FTA, 한·ASEAN<sup>2)</sup> FTA, 한·인도 CEPA<sup>3)</sup>, 한·EU FTA, 한·페루 FTA가 발효되었고, 한·미 FTA가 2011년 10월 17일 현재 발효를 앞두고 있음
- 또한 캐나다, 멕시코, GCC,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와 협상중에 있으며, 일본,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베트남, 몽골, 중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과도 공동연구 내지 여건 조성 중에 있음

<표 2> FTA 추진현황

발효	서명/협상타결	협상중인 국가	공동연구/여건조성
한·칠레 FTA(2004.4.1) 한·싱가포르 FTA(2006.3.2) 한·EFTA FTA(2006.9.1) 한·ASEAN(2007.6.1) 한·인도 CEPA(2010.1.1) 한·EU FTA,(2011.7.1) 한·페루 FTA(2011.8.1)	한·미 FTA	캐나다 멕시코 GCC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일본 중국 MERCOSUR 러시아 이스라엘 SACU 베트남 몽골 중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 1)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노르웨이·스위스·리히텐슈타인·아이슬란드 등 4개국이 회원국들 간에 공산품 교역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
- 2)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 공동체. 회원국은 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타이 등 5개국이었으나, 1984년의 브루나이에 이어 1995년 베트남이 정식으로 가입하고, 그후 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가 가입하여 아세안은 10개국)
- 3)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시장 개방보다는 경제협력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등 실제 내용은 자유무역협정(FTA)과 큰 차이가 없음

## 2. 충남과 FTA 국가 및 경제권의 교역구조

- FTA 타결국가 및 경제권이 충남의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과 같음

<표 3> FTA 협정국가와 충남의 교역구조 (2010)

(단위: 백만불)

	수출액	비중	수입액	비중	수지
칠레	68	(0.1)	112	(0.4)	△44
싱가포르	1,191	(2.2)	124	(0.5)	1,067
EFTA	11	(0.0)	88	(0.4)	△77
ASEAN	3,886	(7.2)	2,736	(11.0)	1,150
인도	422	(0.8)	709	(2.8)	△287
EU	5,065	(9.4)	1,285	(5.2)	3,780
미국	4,717	(8.7)	1,059	(4.3)	3,658
페루	40	(0.1)	19	(0.1)	21
계	54,054	(100.0)	24,893	(100.0)	29,161

- 충남의 2010년 총수출액은 541억불이며 수입액은 249억불로 총교역액은 790억불 수준
- 충남의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 및 경제권은 EU, 미국, ASEAN, 싱가포르 순이며 그 이외지역은 수출비중이 전체대비 1%도 되지 않음
- 충남의 수입비중이 높은 국가 및 경제권은 ASEAN, EU, 미국, 인도 순이며 그 이외지역은 수입비중이 전체대비 1%도 되지 않음
- 충남은 칠레, EFTA, 인도와의 교역에서 무역적자를 보고 있으며 싱가포르, ASEAN, EU, 미국, 페루와의 교역에서는 흑자를 보고 있음
- 우리나라는 다양한 국가 및 경제권과 FTA를 발효 또는 발효를 앞두고 있으나 충남의 경우 주요 대상국은 미국, EU, ASEAN(싱가포르 포함)이라 하겠음

### 3. 지난 FTA가 충남에 미친 영향

#### 1) 한·칠레 FTA

※ 충남의 대칠레 수출비중은 0.1%, 수입비중은 0.4%로 교역규모는 작은 편

<표 4> 대칠레 수출동향

(단위: 천불, %)

	2004 (발효)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농림수산물	1	4	7	29	51	143	39	0.84
광산물	13	6	194	23,039	331	325	396	0.77
화학공업제품	6,076	10,919	11,131	9,558	15,616	7,281	27,111	0.28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678	270	65	155	911	2,369	2,824	0.27
섬유류	45	179	240	133	64	154	61	0.05
생활용품	600	429	183	631	641	225	426	-0.06
철강금속제품	856	1,408	2,226	1,695	14,138	10,961	16,275	0.63
기계류	3,897	4,483	4,336	8,330	7,488	21,025	16,964	0.28
전자전기제품	310	4,425	3,579	1,516	5,528	5,236	3,769	0.52
잡제품	13	21	11	8	16	2	3	-0.22
계	12,489	22,144	21,972	45,094	44,784	47,721	67,868	0.33

○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충남의 대칠레 수출은 연평균 33% 증가

- 대칠레 수출은 2010년 기준 화학공업제품, 기계류, 철강금속제품 순
-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농림수산물, 광산물, 철강금속제품, 전자전기제품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5> 대칠레 수입동향

(단위: 천불, %)

	2004 (발효)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농림수산물	6,008	3,570	5,088	8,821	7,261	10,168	8,703	0.06
광산물	0	0	0	0	0	0	0	
화학공업제품	9,224	14,321	13,412	61,538	87,980	64,573	97,903	0.48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0	0	0	0	0	0	0	
섬유류	0	0	0	0	0	0	0	
생활용품	0	0	0	0	0	0	0	
철강금속제품	18,943	20,352	98,337	132,086	31	5,097	5,359	-0.19
기계류	0	0	0	30	0	0	36	
전자전기제품	0	0	1	0	0	0	1	
잡제품	0	0	0	0	0	0	0	
계	34,175	38,243	116,838	202,475	95,272	79,838	112,002	0.22

- 한·칠레 FTA 이후 충남의 대칠레 수입은 연평균 22% 증가
  - 대칠레 수입은 2010년 기준 화학공업제품, 농림수산물, 철강금속제품 순
  - 연평균 수입증가율은 화학공업제품, 농림수산물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철강금속제품의 수입은 오히려 감소

<표 6> 대칠레 무역수지

(단위: 천불, %)

	2004 (발효)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	12,489	22,144	21,972	45,094	44,784	47,721	67,868
수입	34,175	38,243	116,838	202,475	95,272	79,838	112,002
무역수지	-21,686	-16,099	-94,866	-157,381	-50,488	-32,117	-44,134

- 발효시점부터 충남은 대칠레 무역적자 지역이었으며 2010년 현재도 44,134천불의 무역적자가 지속
- 특히 2006년 중·칠레 FTA, 2007년 일·칠레 FTA 발효 등으로 인해 우리 주요 경쟁국들의 칠레 시장 내 경쟁조건이 개선되어 우리 기업들은 최근 칠레 시장에서 보다 치열해진 경쟁에 직면
- 한·칠레 FTA로 칠레와의 교역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는 물론 충남 또한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무역적자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 2) 한·싱가포르 FTA

- ※ 충남의 대싱가포르 수출비중은 2.2%, 수입비중은 0.5%로 교역규모가 큰 편은 아님
- 한·싱가포르 FTA 이후 충남의 대싱가포르 수출은 연평균 4% 증가
  - 대싱가포르 수출은 2010년 기준 광산물, 전자전기제품, 기계류, 화학공업제품 순

-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농림수산물, 광산물, 기계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생활용품, 철강금속제품, 전자전기제품은 오히려 수출이 감소

<표 7> 대싱가포르 수출동향

(단위: 천불, %)

	2005	2006 (발효)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농림수산물	162	201	307	1,375	2,028	2,504	0.88
광산물	116,260	129,781	204,010	715,350	398,850	569,969	0.45
화학공업제품	7,413	8,508	12,777	20,410	26,549	20,343	0.24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3,327	5,648	6,764	6,648	3,449	3,995	-0.08
섬유류	222	1,452	3,594	2,690	2,032	1,794	0.05
생활용품	1,954	1,321	1,472	844	606	914	-0.09
철강금속제품	31,396	18,622	20,074	31,915	10,773	11,877	-0.11
기계류	17,631	25,304	60,384	29,091	35,117	74,825	0.31
전자전기제품	676,529	812,453	689,041	498,447	411,357	503,222	-0.11
잡제품	2,342	914	807	862	854	1,688	0.17
계	857,236	1,004,204	999,230	1,307,632	891,615	1,191,131	0.04

- 한·싱가포르 FTA 이후 총남의 대싱가포르 수입은 연평균 20% 증가
  - 대싱가포르 수입은 2010년 기준 전자전기제품, 기계류, 화학공업제품 순
  - 연평균 수입증가율은 광산물,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생활용품,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섬유류의 수입은 오히려 감소

<표 8> 대싱가포르 수입동향

(단위: 천불, %)

	2005	2006 (발효)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농림수산물	1,032	1,020	3,023	2,738	1,485	1,886	0.17
광산물	14,141	1	9	129,293	16,019	10,806	9.20
화학공업제품	16,101	17,118	15,504	11,605	9,967	17,873	0.01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321	57	128	468	846	1,352	1.21
섬유류	38	13	9	6	8	12	-0.02
생활용품	45	6	70	62	106	54	0.73
철강금속제품	342	542	670	250	122	678	0.06
기계류	16,010	12,951	33,960	17,819	6,142	35,279	0.28
전자전기제품	76,069	29,038	50,463	11,532	24,615	56,115	0.18
잡제품	35	17	48	5	10	63	0.39
계	124,134	60,763	103,884	173,778	59,320	124,118	0.20

<표 9> 대싱가포르 무역수지

(단위: 천불, %)

	2005	2006 (발효)	2007	2008	2009	2010
수출	857,236	1,004,204	999,230	1,307,632	891,615	1,191,131
수입	124,134	60,763	103,884	173,778	59,320	124,118
무역수지	733,102	943,441	895,346	1,133,854	832,295	1,067,013

- 발효이전부터 충남은 대싱가포르 무역흑자 지역이었으며 2010년 현재도 1,067,013천불의 무역흑자가 지속
- 다만 한·싱가포르 FTA 발효 이후 충남의 수출은 연평균 4% 증가하였고 수입은 연평균 20% 증가하여 수출증가가 수입증가에 비해 더딘 점은 충남경제에 부담

### 3) 한·EFTA FTA

※ 충남의 대EFTA 수출비중은 0.0%, 수입비중은 0.4%로 교역규모는 작은 편

<표 10> 대EFTA 수출동향

(단위: 천불, %)

	2005	2006 (발효)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스위스	13,855	13,565	29,362	16,204	3,094	7,303	-0.14
아이슬란드	937	1,539	605	402	103	28	-0.63
리히텐슈타인	42	80	61	33	0	6	-0.48
노르웨이	3,156	4,967	5,008	4,630	4,214	3,558	-0.08
계	17,990	20,151	35,036	21,269	7,411	10,895	-0.14

- 한·EFTA FTA 이후 충남의 대EFTA 수출은 연평균 14% 감소
  - EFTA 국가 중 스위스로의 수출이 7,303천불로 가장 많음
  - 연평균 수출감소율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11> 대EFTA 수입동향

(단위: 천불, %)

	2005	2006 (발효)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스위스	19,979	34,219	21,988	31,026	30,521	61,191	0.16
아이슬란드	15	1,179	153	85	125	0	-1.00
리히텐슈타인	0	0	0	0	0	2	-
노르웨이	25,072	2,607	6,977	139,537	30,855	26,604	0.79
계	45,066	38,005	29,118	170,648	61,501	87,797	0.23

- 한·EFTA FTA 이후 충남의 대EFTA 수입은 연평균 23% 증가
  - 대EFTA 수입은 2010년 기준 스위스, 노르웨이 순
  - 연평균 수입증가율은 노르웨이, 스위스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아이슬란드로부터 수입은 감소

<표 12> 대EFTA 무역수지

(단위: 천불, %)

	2005	2006 (발효)	2007	2008	2009	2010
수출	17,990	20,151	35,036	21,269	7,411	10,895
수입	45,066	38,005	29,118	170,648	61,501	87,797
무역수지	-27,076	-17,854	5,918	-149,379	-54,090	-76,902

- 발효이전부터 충남은 대EFTA 무역적자 지역이었으며 2010년 현재도 76,902천불의 무역적자가 지속
- 한·EFTA FTA 발효 이후 충남의 수입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수출은 오히려 감소 추세인 점은 충남경제에 부담

#### 4) 한·ASEAN FTA

※ 충남의 대ASEAN 수출비중은 7.2%, 수입비중은 11.0%로 교역규모가 큼

<표 13> 대ASEAN 수출동향

(단위: 천불, %)

	2006	2007 (발효)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브루나이	120	33	367	845	3,693	3.82
인도네시아	108,876	167,018	403,601	236,106	307,576	0.23
캄보디아	1,882	3,529	2,449	2,298	2,758	-0.08
라오스	262	884	177	359	214	-0.38
미얀마	8,472	8,619	12,509	19,885	24,464	0.42
말레이시아	647,424	1,038,322	980,238	931,035	1,280,067	0.07
필리핀	194,787	134,923	134,923	179,032	203,951	0.15
싱가포르	1,004,204	999,231	1,307,632	891,615	1,191,131	0.06
태국	249,054	316,763	372,625	398,900	394,149	0.08
베트남	219,471	336,996	792,755	306,814	477,565	0.12
계	2,434,552	3,006,318	4,007,276	2,966,889	3,885,568	0.09

- 한·ASEAN FTA 이후 총남의 대ASEAN 수출은 연평균 9% 증가
  - ASEAN 국가 중 말레이시아로의 수출이 1,280,067천불로 가장 많고 싱가포르, 베트남 순임
  -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브루나이, 미얀마, 인도네시아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캄보디아, 라오스로의 수출은 오히려 감소

<표 14> 대ASEAN 수입동향

(단위: 천불, %)

	2006	2007 (발효)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브루나이	212,367	87,209	210,161	110,981	196,907	0.31
인도네시아	692,889	1,134,536	1,574,873	1,427,293	1,918,382	0.19
캄보디아	0	24	3	35	165	0.90
라오스	0	721	0	24	3	-0.84
미얀마	180	222	301	366	398	0.21
말레이시아	321,982	521,577	568,138	186,369	265,164	-0.20
필리핀	24,428	30,877	16,140	12,017	49,958	0.17
싱가포르	60,763	103,884	173,777	59,322	124,118	0.06
태국	53,454	98,858	126,105	121,666	117,417	0.06
베트남	15,760	39,774	24,944	70,192	63,200	0.17
계	1,381,823	2,017,682	2,694,442	1,988,265	2,735,712	0.11

- 한·ASEAN FTA 이후 총남의 대ASEAN 수입은 연평균 11% 증가
  - 대ASEAN 수입은 2010년 기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순
  - 연평균 수입증가율은 캄보디아, 브루나이, 미얀마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라오스, 말레이시아로부터의 수입은 감소

<표 15> 대ASEAN 무역수지

(단위: 천불, %)

	2006	2007 (발효)	2008	2009	2010
수출	2,434,552	3,006,318	4,007,276	2,966,889	3,885,568
수입	1,381,823	2,017,682	2,694,442	1,988,265	2,735,712
무역수지	1,052,729	988,636	1,312,834	978,624	1,149,856

- 발효이전부터 총남은 대ASEAN 무역흑자 지역이었으며 2010년 현재도 1,149,856천불의 무역흑자가 지속
- 한·EFTA FTA 발효 이후 총남의 수출과 수입은 모두 증가
- 비록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수입의 증가율보다 낮은 점은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5) 한·인도 CEPA

※ 총남의 대인도 수출비중은 0.8%, 수입비중은 2.8%로 교역규모가 큰 편은 아님

<표 16> 대인도 수출동향

(단위: 천불, %)

	2009	2010 (발효)	연평균 증가율
농림수산물	180	212	0.18
광산물	979	2,283	1.33
화학공업제품	104,701	96,532	-0.08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7,266	14,176	0.95
섬유류	332	311	-0.06
생활용품	3,596	5,811	0.62
철강금속제품	41,627	58,392	0.40
기계류	58,165	95,641	0.64
전자전기제품	137,957	148,099	0.07
잡제품	479	629	0.31
계	355,282	422,086	0.19

- 한·인도 CEPA 이후 총남의 대인도 수출은 발효전과 비교해서 연평균 19% 증가
  - 대인도 수출은 2010년 기준 전자전기제품, 화학공업제품, 기계류 순

-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광산물, 기계류, 생활용품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그러나 화학공업제품, 석유류의 수출은 오히려 감소

<표 17> 대인도 수입동향

(단위: 천불, %)

	2009	2010 (발효)	연평균 증가율
농림수산물	27,531	21,542	-0.22
광산물	426,063	580,906	0.36
화학공업제품	26,248	14,557	-0.45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224	381	0.70
석유류	7,006	10,967	0.57
생활용품	40	112	1.80
철강금속제품	10,346	65,504	5.33
기계류	2,109	6,676	2.17
전자전기제품	2,423	5,404	1.23
잡제품	0	2,794	-
계	501,990	708,843	0.41

- 한·인도 CEPA 이후 총남의 대인도 수입은 발효전과 비교해서 연평균 41% 증가
  - 대인도 수입은 2010년 기준 광산물, 철강금속제품, 농림수산물 순이나 광산물이 대부분을 차지함
  - 연평균 수입증가율은 철강금속제품, 기계류, 생활용품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농림수산물, 화학공업제품의 수입은 감소

<표 18> 대인도 무역수지

(단위: 천불, %)

	2009	2010 (발효)
수출	355,282	422,086
수입	501,990	708,843
무역수지	-146,708	-286,757

- 발효이전부터 총남은 대인도 무역적자 지역이었으며 2010년 현재도 286,757천불의 무역적자를 기록
-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총남의 수출과 수입은 모두 증가하였으나 발효전에 비해 무역 적자폭이 확대된 점은 총남경제에 부담

## 4. 향후 FTA가 충남에 미칠 영향

- 지금까지는 발효 후 시간이 경과한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FTA, 인도 CEPA가 충남의 경제에 미친 영향을 개략적으로나마 살펴보았음
- 본절에서는 최근에 발효된 한·EU FTA, 한·페루 FTA와 발효를 앞둔 한·미 FTA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고자 함

### 1) 한·EU FTA

※ 충남의 대EU 수출비중은 9.4%, 수입비중은 5.2%로 교역규모가 매우 큼

<표 19> 충남의 대EU 무역수지

(단위: 천불, %)

구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농림수산물(0)	3,250	0.1	70,996	5.5	△67,746
축산물(02)	696	0.0	19,709	1.5	△19,013
축산가공품(024)	80	0.0	12,926	1.0	△12,846
광산물(1)	33,095	0.7	55,373	4.3	△22,278
화학공업품(2)	105,861	2.1	235,570	18.3	△129,709
석유화학(21)	50,202	1.0	30,017	2.3	20,185
정밀화학(22)	29,334	0.6	166,068	12.9	△136,734
플라스틱 고무 가죽제품(3)	77,001	1.5	27,081	2.1	49,920
섬유류(4)	15,853	0.3	35,059	2.7	△19,206
편직물(436)	455	0.0	0	0.0	455
생활용품(5)	40,423	0.8	4,463	0.3	35,960
철강금속제품(6)	148,548	2.9	110,139	8.6	38,409
기계류(7)	249,009	4.9	636,624	49.5	△387,615
자동차(741)	1,560	0.0	25,426	2.0	-23,866
자동차 부품(742)	135,286	2.7	22,786	1.8	112,500
전자전기제품(8)	4,389,184	86.7	108,545	8.4	4,280,639
영상기기(821)	37,301	0.7	851	0.1	36,450
무선통신기기(812)	54,101	1.1	1,390	0.1	52,711
평판디스플레이(836)	2,988,379	59.0	3,051	0.2	2,985,328
잡제품(9)	2,385	0.0	1,593	0.1	792

자료: 한국무역협회

- 충남의 대EU 업종별 수출현황은 전자전기제품이 86.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계류(4.9%) 철강금속제품(2.9%) 순
- 충남의 대 EU 업종별 수입현황은 기계류가 49.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화학공업품(18.3%), 전자전기제품(8.4%) 순
- 충남이 EU로부터 무역흑자를 보는 품목은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생활용품, 철강금속제품, 전자전기제품, 잡제품이었으며, 무역적자를 보는 품목은 농림수산물, 광산물, 화학공업품, 석유류, 기계류 임

<표 20> 한EU FTA가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

구분	항목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	수출 비중	수입 비중
수혜예상	석유류	긍정적 영향은 전국에 비해 작음	87.0	11.1
	편직물	긍정적 영향은 전국에 비해 작음		
	전자전기제품	긍정적 영향은 전국에 비해 큼		
	영상기기	긍정적 영향은 전국에 비해 작음		
	무선통신기기	긍정적 영향은 전국에 비해 작음		
	평판디스플레이	긍정적 영향은 전국에 비해 큼		
중립예상	광산물	X	5.9	15.4
	플라스틱 고무 및가죽제품			
	생활용품			
	철강금속제품			
	잡제품			
폐해예상	농림수산물	부정적 영향은 전국에 비해 큼	7.1	73.3
	화학공업품	부정적 영향은 전국과 비슷함		
	석유화학	부정적 영향은 전국에 비해 작음		
	정밀화학	부정적 영향은 전국에 비해 큼		
	기계류	부정적 영향은 전국에 비해 큼		
	자동차	긍정적 영향은 전국에 비해 작음		
	자동차 부품	긍정적 영향은 전국에 비해 작음		

주: 중립예상 품목은 분석에서 제외, 기계류 중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한-EU FTA의 수혜 품목

- 한·EU는 충남과의 교역규모가 크고 FTA로 수출확대가 예상되어 전반적으로 충남 지역 경제에 부정적 효과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여겨짐
  - 충남은 대EU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수출우위 상황이므로, FTA로 인한 관세인하는 지역경제 전체로 보면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
  - 충남은 제조업이 전체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긍정적이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나 농림어업의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
- 교역구조를 고려하면 수혜가 예상되는 섬유류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수출비중이 전국에 비해 낮아 FTA가 충남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전국에 비해 작을 것으로 예상되나 전자전기제품의 경우 긍정적 영향은 전국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
- 한·EU 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림수산물과 기계류의 경우 수입비중이 전국에 비해 높아 부정적 영향은 전국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되나 화학공업품의 경우 부정적 영향은 전국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

## 2) 한·미 FTA

- ※ **충남의 대미 수출비중은 8.7%, 수입비중은 4.3%로 교역규모가 매우 큼**
- 충남의 대미 업종별 수출현황은 전자전기제품이 57.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계류(21.8%), 광산물(9.5%) 화학공업품(4.3%) 순
- 충남의 대미 업종별 수입현황은 농림수산물이 3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화학공업품(24.3%), 기계류(14.2%), 전자전기제품(9.6%) 순
- 충남이 미국으로부터 무역적자를 보는 품목은 농림수산물과 화학공업품 임

<표 21> 충남의 대미 무역수지(2010)

(단위: 천불, %)

구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농림수산물(0)	41,981	0.9	353,608	33.4	△311,627
축산물(02)	7,661	0.2	36,404	3.4	△28,743
축산가공품(024)	7,661	0.2	21,444	2.0	△13,783
광산물(1)	449,959	9.5	61,646	5.8	388,313
화학공업품(2)	202,355	4.3	257,429	24.3	△55,074
석유화학(21)	72,328	1.5	40,170	3.8	32,158
정밀화학(22)	33,482	0.7	132,715	12.5	△99,233
플라스틱 고무 가죽제품(3)	73,966	1.6	32,056	3.0	41,910
섬유류(4)	6,981	0.1	6,470	0.6	511
편직물(436)	129	0.0	0	0.0	129
생활용품(5)	14,118	0.3	2,843	0.3	11,275
철강금속제품(6)	191,906	4.1	88,782	8.4	103,124
기계류(7)	1,030,595	21.8	150,073	14.2	880,522
자동차(741)	63,894	1.4	1,817	0.2	62,007
자동차 부품(742)	651,205	13.8	13,300	1.3	637,905
전자전기제품(8)	2,694,609	57.1	101,264	9.6	2,593,345
영상기기(821)	43,709	0.9	83	0.0	43,626
무선통신기기(812)	3,589	0.1	1,803	0.2	1,786
평판디스플레이(836)	580,452	12.3	4,043	0.4	576,409
잡제품(9)	10,713	0.2	5,316	0.5	5,397

자료: 한국무역협회(MIT 산업분류 기준)

- 한·미 또한 한·EU와 더불어 충남과의 교역규모가 크고 FTA로 수출확대가 예상되어 전반적으로 충남지역 경제에 부정적 효과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여겨짐
- 충남은 대미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수출우위 상황이므로, FTA로 인한 관세 인하는 지역경제 전체로 보면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
- 다만 재협상으로 인해 한·미 FTA 수혜업종으로 예상되던 자동차분야에서의 성과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미국의 대량생산으로 값싼 농산물이 들어올 경우 농림 어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

<표 22> 한미 FTA가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

구분	항목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	수출 비중	수입 비중
수혜예상	섬유류	긍정적 영향은 전국에 비해 작음	57.5	10.5
	생활용품	긍정적 영향은 전국에 비해 작음		
	전자전기제품	긍정적 영향은 전국에 비해 큼		
	평판디스플레이	긍정적 영향은 전국에 비해 큼		
중립예상	광산물	X	15.4	26.7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철강금속제품			
	잡제품			
폐해예상	농림수산물	부정적 영향은 전국에 비해 큼	27.0	71.9
	화학공업품	부정적 영향은 전국에 비해 큼		
	기계류	부정적 영향은 전국에 비해 작음		
	자동차	긍정적 영향은 전국에 비해 작음		
	자동차 부품	긍정적 영향은 전국에 비해 큼		

주: 중립예상 품목은 분석에서 제외, 기계류 중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한-미 FTA의 수혜 품목

- 교역구조를 고려하면 수혜가 예상되는 섬유류, 생활용품은 수출비중이 전국에 비해 낮아 FTA가 충남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전국에 비해 작을 것으로 예상되나 전자전기제품의 경우 긍정적 영향은 전국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
- 한미 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림수산물, 화학공업품의 경우 수입비중이 전국에 비해 높아 부정적 영향은 전국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되나 기계류의 경우 부정적 영향은 전국에 비해 작을 것으로 예상

### 3) 한·페루 FTA

※ 충남의 대페루 수출비중은 0.1%, 수입비중은 0.1%로 교역규모가 매우 작음

- 한·페루 FTA 체결로 충남의 교역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표 23> 충남의 대페루 무역수지(2010)

(단위: 천불, %)

구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농림수산물(0)	86	0.2	930	5.0	△844
광산물(1)	0	0.0	17,406	92.7	△17,406
화학공업품(2)	17,592	43.9	0	0.0	17,592
플라스틱 고무 가죽제품(3)	1,990	5.0	0	0.0	1,990
섬유류(4)	2,659	6.6	7	0.0	2,652
생활용품(5)	287	0.7	0	0.0	287
철강금속제품(6)	14,727	36.7	437	2.3	14,290
기계류(7)	2,245	5.6	5	0.0	2,240
전자전기제품(8)	525	1.3	0	0.0	525
잡제품(9)	0	0.0	0	0.0	0

자료: 한국무역협회(MIT 산업분류 기준)

○ 충남의 주요 수출품목은 화학공업품, 철강금속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철, 동, 등 광산물 임

- 관세 인하로 페루 시장에서 자동차 및 현행 관세율이 높은 세탁기·냉장고, 섬유직물염료, 자동차 배터리, 중장비 부품, TV, 컴퓨터, 플라스틱제품, 의약품 등의 수출 증가 예상

○ 한·페루 FTA는 한·칠레 FTA에 이어 충남의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

- 안정적인 외국인 투자 환경과 지리적 조건에 힘입어 남미 진출의 교두보로써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

- 태평양 연안의 카야오(Callao) 항구는 한국과 중남미간 최단 거리

-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 2011, 세계은행)에서 페루(36위)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 멕시코(35위) 다음으로 기업환경이 양호한 국가로 평가

## 4. 요약 및 결론

- 우리나라는 다양한 국가 및 경제권과 FTA를 발효 또는 발효를 앞두고 있음
- 이중 총남의 경우 주요 대상국은 미국, EU, ASEAN이라 하겠음
  - 싱가포르, ASEAN 국가 중 하나이며 칠레, 인도, 페루의 경우 총남의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음
- FTA가 총남경제에 미친 그간의 성과와 전망을 개략적으로나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24> FTA의 성과 및 전망

	수출	수출 비중	수입	수입 비중	무역 수지	평가	비고
칠레	증가	(0.1)	증가	(0.4)	적자	다소 기여	성과
싱가포르	증가	(2.2)	증가	(0.5)	흑자	기여	
EFTA	감소	(0.0)	증가	(0.4)	적자	기여 미비	
ASEAN	증가	(7.2)	증가	(11.0)	흑자	기여	
인도	증가	(0.8)	증가	(2.8)	적자	다소 기여	
EU	증가	(9.4)	증가	(5.2)	흑자	기여	전망
미국	증가	(8.7)	증가	(4.3)	흑자	기여	
페루	증가	(0.1)	증가	(0.1)	흑자	기여	

주: 수출입 비중은 총남의 전체 수출입에서 해당국가가 차지하는 비중

- 싱가포르, ASEAN FTA는 총남의 교역증가 및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하였음
  - 이들 국가 및 경제권에 대해 총남의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하여 교역 규모가 확대되었고 현재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음
- 칠레 FTA와 인도 CEPA의 경우도 어느 정도 총남경제에 기여한 것으로 여겨짐

- 다만 이들 국가와의 무역수지가 적자인 점은 충남이 앞으로 모니터링 해야 할 부분임

○ EFTA FTA는 충남경제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음

- 수출은 감소하였고 수입은 증가하여 무역수지적자규모가 확대되었음

- 따라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무역적자의 원인을 파악하고 충남의 수출 기업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해가야 할 것임

○ 그러나 우리나라는 물론 충남의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한·미/한·EU FTA의 경우 충남의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짐

○ 충남의 4대 핵심산업은 자동차산업, 디스플레이, 철강, 석유화학산업으로 한·미/한·EU FTA가 발효되면 자동차산업과 디스플레이산업은 긍정적 영향을, 석유화학산업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충남은 특히 전자전기제품(디스플레이)의 수출비중이 매우 높아 긍정적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한·미 FTA 재협상으로 인해 FTA 수혜업종으로 예상되던 자동차 분야에서의 성과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

○ 또한 충남은 전국대비 농림어업 생산량이 많은 지역으로 시장개방으로 더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농림어업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충남은 수혜품목에 대해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은 지역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피해최소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함

- 아울러 FTA 협상 국가별로 단계를 설정하여 FTA를 위한 준비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표 25> FTA 협상 국가별 지원전략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발효국가	비준예정국가	협상중인 국가	여건조성국가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캐나다, 멕시코, GCC,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등	일본,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지역 대응방안	지역 대응방안	지역 대응방안	지역 대응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산업과 지역에 대한 지원책 강화</li> <li>▶ FTA 활용방안 교육 및 홍보</li> <li>▶ FTA에 대한 이해 증대 노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산업 예측과 피해최소화 방안마련</li> <li>▶ FTA에 대한 이해 증대 노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상주시 및 피해산업 예측</li> <li>▶ 중앙정부와의 대화채널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수집 및 피해산업 예측</li> </ul>